

여자가수들 컴백 키워드는 '홀로서기'

휘인·문별, 3일 간격 음원 경쟁 태연, 2년 4개월만에 신규 앨범 최예나·유주 솔로 가수 첫 도전 정예인, 러블리즈 해체 후 첫선

여성 솔로 가수들의 대격돌이 시작됐다. 1월부터 케이팝 그룹의 컴백 대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걸그룹 출신 멤버들이 저마다 출사표를 던진다.

마마무 멤버 휘인과 문별, 여자친구의 유주, 아이즈원의 최예나, 러블리즈의 정예인 등이 비슷한 시기에 공통적으로 '홀로서기'라는 키워드를 들고 나섰다. 점도 흥미롭다. 걸그룹으로 활동하며 국내외에서 쌓아온 인지도와 팬덤을 바탕으로 솔로가수로도 입지를 키워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들과 함께 '선배 격'인 소녀시대의 태연과 씨스타 출신의 효린도 새 앨범을 발표해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음원 퀸' '민고 듣는 보컬'이라는 타이틀로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소녀시대 태연이 2년 만에 솔로 정규 앨범으로 돌아온다. 미니음반이나 싱글이 아닌 정규를 선보이는 것은 2019년 10월 발표한 2집 '퍼포즈'(Purpose)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태연은 2월 새 앨범을 발표하기에 앞서 17일 작사한 '캔트 컨트롤 마이셀프'를 선 공개하고 팬들과 만났다. '아이'(I), '레인'(Rain), '와이'(Why), '파인'(Fine), '위켄드'(Weekend) 등 잇달아 히트곡을 내놓은 만큼 정규앨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태연과 같은 날 아이즈원 출신 최예나도 미니음반 '스마일라'를 내고 솔로 가수로 데뷔했다. 아이즈원 활동 당시 보컬, 댄서, 래퍼 등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한 만큼 솔로 활동에서도 다채로운 모습



휘인



문별



유주



최예나



효린



태연

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다음날인 18일 여자친구 출신 유주가 나선다. 유주는 이날 솔로 데뷔 음반 'R.E.C.'를 발표하고 처음 솔로로 첫발을 내디딘다. 여자친구 활동 종료 이후 약 1년 2개월 만의 솔로 컴백이라는 점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2015년 데뷔한 유주는 여자친구에서 메인보컬로 활동하며 '시간을 달려서', '오늘부터 우리는', '유리구슬' 등 히트곡으로 사랑받았다.

마마무의 두 멤버가 3일 간격으로 새 앨범을 내놓는 점도 눈길을 끈다. 휘인이 16일 새 미니음반 '휘'를 발표했고, 3일 뒤인 19일 문별이 '시퀀스'(Sequence)를 선보인다. 같은 주에 펼쳐지는 두 멤버의 경쟁도 지켜볼만 하다.

휘인은 다른 멤버들과 달리 지난해 6월 전 소속사 RBW와 전속계약을 종료한 후 라비가 설립한 보컬 레이블 더 라이브에서 새롭게 동지를 틀었다. 마마무 활동

은 2023년 12월까지 이어간다. 러블리즈 출신 정예인은 현재 솔로 활동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11월 전속계약 만료 후 사실상 해체된 러블리즈 멤버들은 각자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했고, 정예인 역시 송강호, 비(정지훈), EXID의 하니, 갯세븐의 잭슨과 영재 등이 소속된 씨브라이아티스트 에이전시에서 첫 솔로 음반을 준비하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뉴스 HOT 5

마동석 '이터널스' 한국어 더빙 '색다르네'



'이터널스' 마동석

배우 마동석이 주연한 마블 영화 '이터널스'의 한국어 더빙에도 참여했다.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디즈니+는 지난해 11월 개봉한 '이터널스'를 최근 공개했다. 마동석은 한국어 더빙판에서 자신이 연기한 길가메시 역의 더빙을 맡았다. 영화에서는 모든 대사를 영어로 소화했다. 이 용자들은 한국어와 영어 대사의 느낌이 미묘하게 달라 재미있다는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이터널스'는 불멸의 히어로들이 인류의 적과 맞서기 위해 다시 뭉치는 이야기를 담는다. 마동석과 함께 안젤리나 졸리, 셀마 헤이엑, 쟈마찬 등이 출연했다.

넷플릭스 '지옥' 로튼토마토 최고의 호러 선정



지옥

지난해 11월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지옥'이 미국 비평 사이트에서 2021년 최고의 호러 시리즈로 꼽혔다. 17일 넷플릭스에 따르면 '지옥'은 로튼토마토가 매해 최고 영화와 시리즈를 발표하는 '골든토마토 어워드'의 베스트 호러 시리즈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평론가 평론지수 97%를 유지해 최고점수를 기록한 결과다. 로튼토마토는 "연상호 감독의 악마 같은 상상력이 만든 무서운 컨셉트로 인간의 오류성을 신중하게 탐구한다"고 평가했다.

'웃소매 붉은 끝동' 배우들 설 특집 예능 출연



이준호·이세영

배우 이준호와 이세영 등 MBC 드라마 '웃소매 붉은 끝동' 출연자들이 설 연휴 특집 예능 프로그램에 나선다. 17일 MBC에 따르면 특집 프로그램인 '웃소매 붉은 끝동 부여잡고'를 설 연휴인 31일 밤 11시10분 방송한다. 1일 종영한 드라마는 17.4%(닐슨 코리아) 시청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다. 특집에서는 주·조연 배우들이 NG 장면, 촬영 비화 등을 풀어놓는다. 가수 장윤성·도경만 부부와 방송인 황광희가 진행한다.

배두나, 정주리 감독 영화 '다음 소희'로 재회



배두나

배우 배두나와 정주리 감독이 2014년 영화 '도희야' 이후 8년 만에 '다음 소희'로 만난다. 17일 제작사 트윈플러스 파트너스에 따르면 배두나는 전날 '다음 소희'의 촬영을 시작했다. 그는 콜센터로 현장실습을 나간 여고생 소희가 얽힌 사건에 의문을 품는 행사를 연기한다. 연출을 맡은 정주리 감독은 '도희야'로 2014년 칸 국제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에 초청돼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배두나는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고요의 바다'를 주연했다.

롯데컬처웍스, '롯데 마스터 프로젝트' 공모전

롯데컬처웍스가 제1회 롯데 마스터 프로젝트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액션의, 액션에 의한, 액션을 위한'이다. 액션과 누아르 장르에 초점을 맞춰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이야기를 발굴하고 영상화한다.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 '차이나타운' 등을 제작한 바른손스튜디오가 공동 주최하고, '아수라' 김성수 감독과 드라마 '빈센조' 등을 쓴 박재범 작가가 마스터 창작자로 참여한다.

편집 | 김대권 기자 bong82@donga.com

이진욱·이동욱·정해인도 헤어 나오지 못하는 '3%의 늪'

이진욱 '불가살' 시청률 6.3% → 3% 이동욱의 '베드 앤'도 3%대 머물러 정해인 '설강화' 역사 논란에 휘청

잘 나가는 한류스타들도 시청률 '3%의 늪'에 빠졌다. 이진욱, 이동욱, 정해인 등 안방극장에 돌아온 톱스타들이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저마다 판타지·로맨스 등 다채로운 장르를 내세웠음에도 3%대 남짓의 시청률을 유지해 아쉬움을 사고 있다.

이진욱이 주연한 tvN 드라마 '불가살'은 최근 3%대(닐슨코리아)의 굴욕을 맛봤다. 지난해 12월18일 6.3%로 시작한 시청률은 15일 3%까지 주저앉았다. 16일 4.3%로 소폭 상승했지만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형 판타지'를 표방한 드라마는 죽지 못하는 존재인 불가살, 설화 속 귀신 어둠시니 등을 등장시켜 볼거리를 늘렸지만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지나치게 어둡고 복잡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동욱의 tvN '베드 앤 크레이지'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해 12월17일 첫 방송

해 내내 3%대 시청률을 기록 중이다. 드라마는 이종인격을 가진 형사 이동욱이 또 다른 자아 위하준과 사건을 해결해가는 내용이다. 화제성도 부족하다. 화제성 조사회사 굿데이터코퍼레이션이 발표한 1월1주차(3~9일) 드라마 화제성 10위에 머물렀다. '도깨비' '구미호전' 등 시청률 불패를 자랑한 이동욱과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의 주역 위하준이 문헌 결과로는 아쉽다는 시선이 많다.

정해인과 블랙핑크 지수가 주연한 JTBC '설강화:스노우드롭'(설강화)은 3%대 시

청률을 유지하고 있다. 방송가는 이를 앞서 광주 민주화운동 평화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여파로 보고 있다. 디즈니+에서는 17일 현재 대만·싱가포르 등 4개국에서 1위에 올랐지만 국내에서는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는 분위기다.

톱스타들이 주축하는 사이 베테랑들이 돋보이는 활약을 펼치고 있다. 주상욱·김영철이 주연해 조선 초기의 역사를 그리는 KBS 1TV '태종 이방원'은 최근 11%대를 돌파했다. 드라마 화제성 차트에도 4위에 랭크됐다. TV조선 '영글'은 철없는 삼촌 오정세가 10대 조카와 가족이 되는 과정이 따뜻하다는 호평을 얻으면서 8%대를 넘겼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BTS 웹툰 본 아미들 극과 극 반응... "생똥맛다" vs "재미있다"

네이버웹툰 '세븐페이스' 서비스 세계관 연관성 없어 상업화 비판 국내 평점 7.68... 해외선 9.92점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등장인물로 내세운 웹툰을 둘러싸고 팬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도대체 BTS와 웹툰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 "콘텐츠 낭비"라는 반응과 일부 "재미있다"라는 평가가 동시에 쏟아진다.

최근 소속사 하이브가 방탄소년단을 앞세워 사업 확장을 하면서 '고가의 잠옷' 'NFT 사업의 막대한 에너지 소비 문제' 등 팬들의 불만이 잇따라 터져 나온 상황이라 '지나친 상업화'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하이브와 네이버웹툰이 콜라보레이션해

전 세계 10개 언어로 동시에 공개한 '세븐 페이스: 차호'(7FATES: CHAKHO)는 조선시대 '범' 잡는 부대로 알려진 '차호감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재해석한 작품이다. 방탄소년단의 일곱 멤버들이 범 사냥꾼으로 변신했다.

15일 프롤로그와 1화가 공개된 웹툰은 '타락한 도시 신시, 길에서 마주친 수수께끼의 사내가 제하에게 의문의 말을 던진다'라고 소개하며 이야기를 풀어갔다.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름만 다를 뿐, 캐릭터와 전반적인 이미지 등은 방탄소년단을 염두에 두고 기획한 만큼 쉽게 멤버들을 떠올릴 수 있다.

문제는 팬들의 반응에서 엇볼 수 있다.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 등 맥락이 방탄소년단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일부 지적이 있

는다. 그동안 방탄소년단이 이어온 세계관도 연관이 없다. 이런 이유 등으로 방탄소년단이 하이브의 사업 확장에 단순 홍보용으로 이용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16일 오후 3시 기준 프롤로그에 대한 평점은 6.99점(이하 10점 만점), 1화는 7.68점에 그쳤다. 같은 날 공개되는 토요 연재 웹툰의 별점 평점이 기본 9점대이고, 특히 방탄소년단의 이름을 내걸고 홍보한 것을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점수다. 이와 달리 미국 등 글로벌에서 집계된 별점은 9.92점으로 높은 점수를 얻고 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이날 "웹툰을 통해 BTS의 목소리를 대변하거나 아티스트의 이미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질적인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면서 "BTS가



아니더라도 다른 캐릭터로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라면 이게 굳이 필요하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